들꽃편지
665
2024.6.21.하지
https://cyw.pe.kr

□ 사랑하는 벗들에게 보내는 편지

# 굴뚝 밑에서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안녕하세요?

교회당 '건물'이 성전인가? 아닙니다. 교회당 건물이 성전이라는 성경적인 근거는 1도 없습니다.

이미 '성전'으로 굳어진 교회당에 대해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성전'을 성결하게 하는데 지불해야 될 엄청난 헌금을 '벽돌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야 합니다. 교회 건물이 무엇을 빼앗아갔는지 알아야 합니다. 교회 건물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인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교회당에서 주일 오전에 잘 차려입고 예배 의식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우리는 바실리카(계급 구조의 상징) 건물을 강제로 안겨준 콘스탄티누스와 로마인들에 의해 눈이 멀었습니다. 오늘날 대형교회 건물은 부자연스럽고, 비인격적이고, 숨막히는 곳입니다. 그 건물 안에서 교인들은 매주 헌금을 했는지 안 했는지 헌금 봉투에 체크 당하는 통계자료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인들은 자신의 '믿음'에 대한 자부심보다는 다른 교회보다 더 크게 지어진 건물에 대한 자부심을 자신의 믿음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존 뉴턴(John newton영국)은 "뾰쪽탑 아래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굴뚝 밑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교회에서 받아주지 않아 교회당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당 굴뚝의 불기를 의지하여 굴뚝 밑에서 예배드리는 노예들이 있었는데, 노예들을 차별하는 교회에 대해 그는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뾰쪽탑에 들어가지 못하고 굴뚝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성전'이라고 주장하는 교회들은 '가나안 성도'들에게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굴뚝 밑에서 예배드리는 최용우 올립니다.

□ 느낌

# 힘내요 당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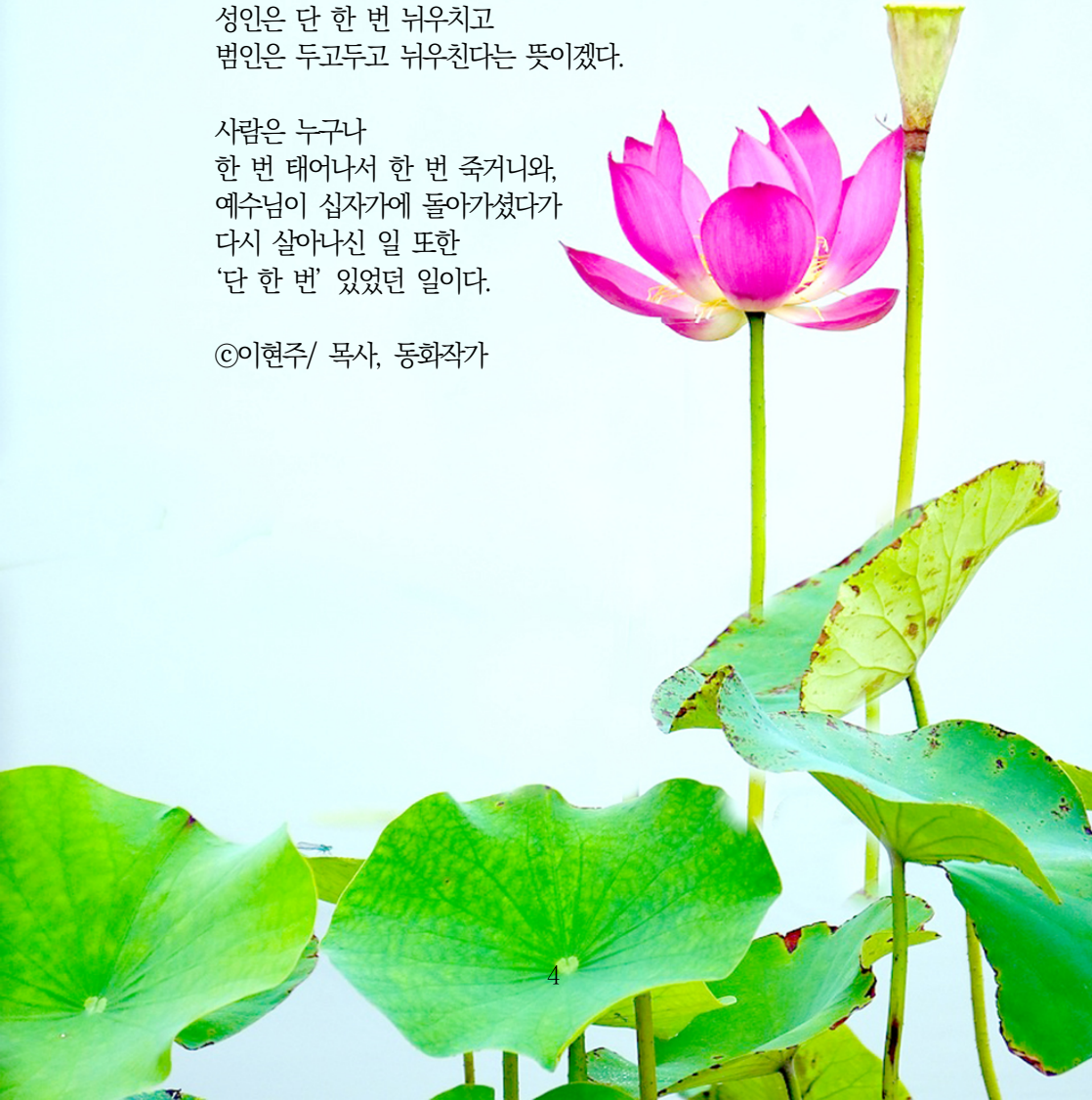
페이스북 에서

# 성인과 범인

성인(聖人)은 참회하고
범인(凡人)은 후회한다고 했다.
참회나 후회나 그 말이 그 말이겠지만
성인은 단 한 번 뉘우치고
범인은 두고두고 뉘우친다는 뜻이겠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거니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 또한
'단 한 번' 있었던 일이다.

ⓒ이현주/ 목사, 동화작가



# 회개56 칭찬받으려고

요즘 장마철도 아닌데도 비가 자주 옵니다.
계속되는 비로 인하여 아파트 주변에 잡초들만 무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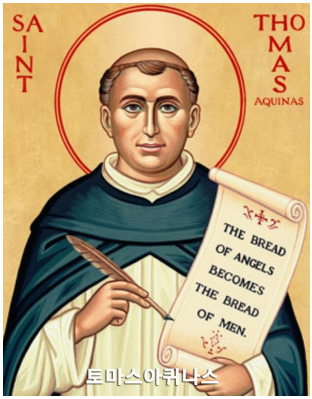
오늘도 경비 일을 하면서 아파트 입구의 화단과
자전거 보관대 주변의 무성한 풀들을 뽑았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기에 한 것뿐입니다.
경비원이 아니면 누가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일을 하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혹시라도 누가 일하는 것을 봐주며
칭찬하여 주는 사람이 없을까 하여서입니다.

마땅히 내가 할 일을
내가 스스로 하였을 뿐인데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손제산 목사 (은퇴 목사)
아파트 경비원으로 첫날 근무하는데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왕년에 목사님이 셨다며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 후 할머니들은 저를 '목사님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어린 공주님도 배꼽 인사를 하면서 "목싼님 아찌 안녕 하셔유?" 은퇴 후 새로 생긴 이름 '목사님 아저씨' 거, 괜찮은 것 같네요.

# 신학대전 읽기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1-60권
기록 연대 1265-1273

기독교 신학의 3대 대작(신국론, 신학대전, 기독교강요)중 가장 방대한 양의〈신학대전〉은 중세 기독교는 물론 75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인간 이성에 호소하는 보편적 진리와 교리적 중심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잡아주는 기독교 최고의 명저이다.

---

**1.기독교 최고 최대의 대작**

〈신학대전〉(神學大全 Summa Theologica, Summa Theologica, Summa)은 중세 스콜라 학파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대표적 저서이며 그 분량이 총 60권에 이를 정도로 실로 어마어마하다. 흔히 기독교의 두 축을 이루는 개신교는 '어거스틴'의 신국론에 뿌리를 둔 신학이고, 가톨릭은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에 뿌리를 둔 신학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두 사람의 신학은 서로 상호보완 하면서 기독교 교리의 토대를 잡아주고 있다.

**2.철학으로 풀어낸 신학책**

〈신학대전〉은 매우 철학적이면서 동시에 신학적인 책이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져와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신앙이 철학으로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니기에 아퀴나스는 필요할 때마다 자신의 신학적인 논리를 차분하게 전개한다. 그리하여 아퀴나스는 기독교 신앙이 신화적 세계에 갇히지 않고 인간 이성으로 설득되는 보편적인 종교가 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3.기독교 신학의 뼈대가 되는 책**

오늘날 철학을 모르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이성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마치 무당처럼 샤머니즘화 하려고 한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은 이런 종교와 미신의 경계에서 기독교가 미신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준다. 〈신학대전〉에 나오는 인식론과 자유의지론 그리고 도덕론과 정의론과 자연법론, 신자의

소유권 문제까지 그의 주장은 중세를 넘어 현대 신학에 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신학적인 든든한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다.

### 4.기독교를 보편종교로 만들어준 책

기독교 신학은 〈인문학〉에 속하는 분야이다. 그것은 기독교 초기 교부시대부터 내려온 전통이다. 기독교의 정체성을 교리로 확립해야 했던 시기에 교부들은 인문주의자들의 철학적 언어로 그것을 정리하였다. 만약 그런 작업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세계적인 보편종교로 살아남지 못하고 소종 종교로 취급받다가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을 것이다. 교부들이 기독교가 미신이 아님을 철학적으로 증명해 놓은 덕을 지금 우리가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이다.

### 5.인문학적인 책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볼 때, 기독교 신앙은 인문주의 신학으로 나아가야 살아남을 수 있다. 지금처럼 기독교가 사회에 보편성을 주지 못하고 '기복신앙을 강조하는 샤머니즘'으로 나간다면 얼마 못가 소멸하고 말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인문주의적인 성향이 매우 강한 나라이다. 조선 500년은 '성리학'이 통치 이념이었다. 그래서 16세기 마테오리치 신부는 성리학과 신학대전을 연관시킨 〈천주실의〉라는 인문학 책을 썼었다. 〈신학대전〉은 신학을 인문주의 철학을 통해 적립한 책이라는 점에서 한국 교회가 꼭 읽고 참고해야 한다.

### 6.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하여

토마스 아퀴나스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사도 바울'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대 신학자이며 기독교 신앙은 그의 신학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신학대전〉은 그의 대표작일 뿐이고 그 외에도 〈이교대전〉 〈명제집〉 〈토론집〉 〈주해서〉등등 엄청난 양의 글을 쏟아냈다. 그는 50세 막 시작되는 해 사망했다. 〈신학대전〉은 그의 말년에 쓴 책인데, 책의 집필을 다 마치지 못하고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뒷부분은 그의 제자들이 그가 써 놓은 글을 정리하여서 보충하였다.

### 7.〈신학대전〉의 구성

〈신학대전〉은 그 양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매우 치밀하고 깊다. 양과 질에 있어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대작이다. 〈신학대전〉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신론, 창조론, 인간론 2부는 윤리론 3부는 그리스도론, 성례론으로 되어 있고 나중에 제자들이 덧붙인 4부는 '색인'에 해당한다.

〈신학대전〉제1부는 총 119개의 질문과 답을 책 15권에 나누어 담았다.
제2부 제1편은 총 114개의 질문과 답을 책 15권에 담았고
제2부 제2편은 총 189개의 질문과 답을 책 17권의 책에 담았다.

제3부는 총 90개의 질문과 답을 13권의 책에 담았다.
제4부는 보충부로서 총 99개의 질문을 15권의 책에 담았다. 아퀴나스가 쓴 〈신학대전〉은 모두 60권이고, 제자들이 보충한 책까지 하면 72권이다.

### 7.〈신학대전〉번역

〈신학대전〉은 모두 4부, 총 72권이다. 제1부 1권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시작하여 500쪽이 넘는 책 15권이 전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방대한 '하나님 스토리'이다. 그런데 중국어, 일본어도 번역본이 있는데 한국어 번역본은 아직까지 20여 권 정도만 번역되어 있다.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되는 일본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어로는 아직 전권이 번역되지 못했다.
아쉽게도 개신교에서는 제대로 번역한 책이 1권도 없다. 이렇게 중요한 책을 아직까지 번역하지 못한 것은 출판사들은 돈이 안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고, 신학자들은 관심이 딴 곳에 가 있기 때문에 지난하기만 하고 별로 빛도 안 나는 일이라 외면해 버리는 것이고, 교단이나 대형 교회에서는 엉뚱한데 돈 쓰느라 생각이 없다. '한국 기독교 신학'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8.〈신학대전〉읽기

가톨릭 〈토마스연구소〉에서 2030년까지 번역을 모두 마칠 계획이라고 하니 나도 지금부터 1달에 1권씩 사서 읽으며 열심히 따라가야겠다.

## 〈신학대전 60권의 책 이름〉

### 제1부

1권 (1-12) 하느님의 존재 /정의채 옮김, 1985
2권 (13-19) 하느님의 생명 /정의채 옮김, 1993.
3권 (20-30) 하느님의 작용과 위격 /정의채 옮김, 1994.
4권 (31-38) 위격들의 구별 /정의채 옮김, 1997.
5권 (39-43) 위격들의 관계 /정의채 옮김, 1998.
6권 (44-49) 창조 /정의채 옮김, 1999.
7권 (50-57) 천사 /윤종국 옮김, 2010.
8권 (58-64) 천사의 활동
9권 (65-74) 우주 창조 /김춘오 옮김, 2010.
10권 (75-78) 인간 /정의채 옮김, 2003.
11권 (79-83) 인간 영혼의 능, /정의채 옮김, 2003.
12권 (84-89) 인간의 지성 /정의채 옮김, 2013.

13권 (90-102)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 /김율 옮김, 2008.
14권 (103-114) 하느님의 통치 /이상섭 옮김, 2009.
15권 (115-119) 우주의 질서 /김정국 옮김, 2010.

**제2부 제1편**

16권 (1-5) 행복 /정의채 옮김, 2000.
17권 (6-17) 인간적 행위 /이상섭 옮김, 2019.
18권 (18-21) 도덕성의 원리 /이재룡 옮김, 2019.
19권 (22-30) 정념
20권 (31-39) 쾌락
21권 (40-48) 두려움과 분노
22권 (49-54) 습성
23권 (55-67) 덕
24권 (68-70) 성령의 선물
25권 (71-80) 죄
26권 (81-85) 원죄
27권 (86-89) 죄의 결과
28권 (90-97) 법 /이진남 옮김, 2020.
29권 (98-105) 옛 법
30권 (106-114) 은총

**제2부 제2편**

31권 (1-7) 믿음
32권 (8-16) 믿음의 결과
33권 (17-22) 희망
34권 (23-33) 사랑
35권 (34-44) 사랑과 결부되는 것
36권 (45-56) 현명
37권 (57-62) 정의
38권 (63-79) 불의
39권 (80-91) 종교와 경신
40권 (92-100) 종교와 결부되는 것
41권 (101-122) 사회적 덕
42권 (123-140) 용기
43권 (141-154) 절제

44권 (155-170) 절제의 부분
45권 (171-178) 예언과 은사
46권 (179-182) 활동과 관상
47권 (183-189) 사목과 수도생활

**제3부**

48권 (1-6) 육화하신 말씀
49권 (7-15) 그리스도의 은총
50권 (16-26)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51권 (27-30) 동정녀 마리아
52권 (31-37) 그리스도의 유년기
53권 (38-45) 그리스도의 생활
54권 (46-52) 그리스도의 수난
55권 (53-59) 예수 부활
56권 (60-65) 성사
57권 (66-72) 세례와 견진
58권 (73-78) 성체성사
59권 (79-83) 영성체
60권 (84-90) 고해성사(쓰는 중에 아퀴나스 사망)

**보충부**

61권 (1-11) 통회
62권 (12-20) 보속과 열쇠
63권 (21-28) 냉담과 대사
64권 (29-33) 병자성사
65권 (34-40) 성품성사
66권 (41-49) 혼인성사
67권 (50-62) 혼인장애
68권 (63-68) 재혼
69권 (69-74) 죽음과 심판
70권 (75-86) 육신의 부활
71권 (87-96) 최후 심판과 성인들
72권 (97-99) 단죄받은 자들

독서일기:최용우

□ 최용우詩

# 오솔길

솔숲 사이로 난 오솔길에
솔방울 굴러다니고
상수리 사이로 난 오솔길에
도토리 굴러 다니고
바위 사이로 난 오솔길에
내가 기어 올라 다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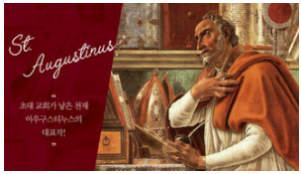
솔숲 사이로 솔향기 가득하고
상수리 사이로 다람쥐 나롱거리고
바위틈 사이로 내 빨간모자
오르락 보였다 내리락 숨었다
희미한 오솔길도
없어졌다가 나타나고

최용우 제9시집〈일출봉에 햇볕이 쨍하오〉

비학산 일출봉 시인의
산중 연가(山中 戀歌)
일출봉에 햇볕이 쨍하오
최용우 지음
210쪽(올컬리) 13600원

꽃같은 그대 있어
이 세상이 꽃 같습니다
아내에게 바치는 시
최용우 지음
216쪽(올컬리) 15000원

# 두 나라의 참된 기원-천사들의 순종과 반항




## 291.우주는 시간과 함께 만들어졌다

시간은 운동 변화 없이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시간의 창조자요 질서를 만드신 분이신 하나님의 영원성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는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우주를 만드신 게 아니라 시간과 우주를 동시에 만들어 내신 것이다.

## 292.창조한 날에 대해서

우리는 지성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망설임 없이 믿을 수는 있다. 물리적인 빛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우주 높은 곳에 있지만 나중에 태양에 그 빛이 불을 붙였다. 빛이라는 이름은 천사들과 축복된 영들로 이루어진 거룩한 세계를 뜻한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은 자유인이며 우리 어머니입니다"(갈4:26)라고 했으며, 다른 곳에서도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살전5:5)라고 한다.

## 293.7일째 날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끝낸 뒤 일곱째 날에 쉬시면서 이날을 거룩한 날로 정했다.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생기고, 한마디 명령에 제자리를 굳혔다."(시33:9,148:5) 이 말은 지성적이며 영구적이다. 그리고 귀에 들려왔다가 사라져버리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쉬는 사람들의 안식을 뜻한다.(히4:4-11)

## 294.천사의 창조에 대하여

시편에는 다음 같은 찬송이 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시므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시148:1-5) -(계속)

# 설교(說敎)

## 1. 설교권

저는 오래전부터 우리가 찰떡같이 믿고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眞如)인지, 아니면 사람이 만든 전통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글쓰기를 시작했는데, 가장 큰 고민은 '설교(說敎)'에 대한 글을 쓰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대충 수위를 조절해서 쓰면 되는데 '설교'에 대한 글은 쓰면 무조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윌 듀란트라는 신학자는 설교를 가리켜 '건드렸다간 큰일나는 개신교의 신성한 소'라고 했습니다.

진료는 의사만 해야 한다는 '의료법'처럼, 기독교에는 설교는 목사만 해야 한다는 '강도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권(說敎權)이라고도 하며, 교단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통과한 '강도사'부터 설교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제도입니다. 보수적인 교단 교회는 강단에 강도권이 없는 사람은 세우지도 않습니다. 일반 교인들은 강대상 주변엔 얼씬도 하면 안 되는 신성불가침의 영역 같은 곳입니다. 교회에서 '강대상 청소'는 서열이 가장 높은 권사 정도의 짬밥은 되어야 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어떤 책에서, 신학대학교 총장을 했던 손 아무개 장로가 아무 교회 초청으로 갔다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강대상에 설 수 없다고 하여 강대상 아래쪽에 서서 '연설'을 하고 왔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국내외 유명한 신학대학원 몇 군데에서 공부한 대단한 실력자인데, 단지 '목사 안수'만 안 받은 분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설교'가 성경에 근거하는가? 놉! 설교는 3-4세기 소피스트(sophist)라고 불리는 떠돌이 선생들이 원조입니다. 그들은 수사학(말하는 기술)을 만들어낸 장본인들이고 그것이 3세기를 전후해서 기독교 안으로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7772)

## 2.성경에 설교가 있나?

기독교에서 건드리면 큰일나는 설교(說敎)는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설교가 성경에 있는가? 없습니다. 요즘 성경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은지 단어를 검색하면 1초만에 다 찾아줍니다. 대다수 한국교회가 사용하는 '개역성경'이나 '개역개정성경'에서 검색해 보면 '설교'라는 단어 자체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설교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설교하는 것'같은 장면은 여러 번 나온다고 할 수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런 설교의 특징은 오늘날 설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이 오늘날과 같은 설교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이단들이 잘하는) 억지로 짜맞추기식 주장에 불과합니다.

개신교 예배에서는 설교 시간이 예배 시간의 반이나 그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만약 예배에서 '설교'를 빼버린다면 찬송가만 부르다마는 이상한 '노래잔치'(?)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설교는 개신교 예배의 대들보이며, 지난 500년 동안 마치 시계추처럼 변함없이 매주일 아침 11시에 전 세계에서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배'와 '설교'를 동일시하며, 예배를 잘 드렸다는 말과 설교를 잘 들었다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 수준은 '주일 예배 설교' 수준과 동일합니다. 그 교회 교인들의 수준은 그 교회 설교자의 수준 이상 넘어가지 못합니다. 대통령이 B급이면 절대로 자기보다 나은 A급 인재를 쓰지 못하고 C급이나 D급 밖에 못쓰는 것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진짜 솔직하게 돌 맞을 각오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보다도 설교가 더 위에 있어 보입니다. 교회에서는 '설교'를 가장 최상위의 권위에 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7773)

## 3.갇힌 설교

기독교에서 건드리면 큰일나는 설교(說敎)를 오늘날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면 첫째, 오늘날의 설교는 형식에 '갇혀'있습니다. 딱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규칙대로 합니다. 그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설교는 주일 아침 11시 대예배라고 부르는 시간의 설교입니다. 이 시간의 예배와 설교는 하늘이 두 쪽 나도(?)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정부에서 갑자기 교회 문을 닫으라고 하니 평생 11시 예배를 드리던 수많은 목회자들이 맨붕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주일 아침 11시 예배는 불변(不變)이라고 정했나요? 당연히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 없고 성경에도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는 것은 구약 '안식일 제의(제사)' 개념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이나 초대교회의 기록에는 그런 정형화된 틀이 없습니다. 당연히 '주일성수'라는 것도 없습니다. 이런 관습은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후대에 이교도의 관습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날 설교는 강물처럼 자유롭게 흘러야 되는데 마치 저수지에 갇혀있는 것처럼, '형식'에 고여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합니다.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정해진 예배 시간 외에는 문이 닫혀있고 잠겨져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산행을 하면서 참 많은 절집 앞을 지나다녀 보았지만 문이 잠겨있는 절은 본 적이 없습니다. 훔쳐갈 것이라면 절에 더 많을 것 같은데.... (7774)

## 4. 잡힌 설교

기독교에서 건드리면 큰일나는 설교(說敎)는 둘째, 오늘날의 설교는 사람에게 '잡혀'있습니다. 어떤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한 사람을 '장인(匠人)'이라고 하면서 존경을 보냅니다. 장인은 자기 일에 대해서는 '눈 감고도' 하죠. 일종의 관성(慣性)작용 입니다. 저는 한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평생 목회를 하다가 은퇴하는 것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보다는 그 교회 교인들은 뭔 죄다냐... 어떻게 평생 한 사람의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그 교회 교인들만 불쌍하다.

사람에게는 '총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총량이 다 하면 자기의 용량이 다 떨어졌으니 그때부터는 바닥을 긁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설교를 다 하면 그때부터는 바닥에 가라앉은 찌꺼기가 나옵니다. 자기 것 다 나오는데 보통 5년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사제들을 다른데 가서 다시 처음처럼 뽑아내라고 5년마다 뺑뺑이 돌립니다.

유효기간 지나면 그때부터는 '무한 반복'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오래 담임하는 교회에서는 그날 설교 성경 본문만 보고도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하겠구나'하고 딱 나옵니다. 그러니 설교에 집중이 안되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영적인 부족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한 사람한테서 평생 가스라이팅 당했는데, 그것을 대를 이어서 하겠다고 세습을 하면... 양심이 좀 있어야죠.

오늘날의 설교는 사람에게 포로처럼 '잡혀'있습니다. '담임'은 교회를 자기만의 왕국으로 만들어 놓고 안심하고 '전혀 긴장감 없는 설교'를 게으르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7775)

## 5.막힌 설교

기독교에서 건드리면 큰일나는 설교(說敎)는 셋째, 오늘날의 설교는 청중들에게 '막혀'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설교자의 귀가 막혀 있습니다. 설교는 '일방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피드백(feedback)이 안 됩니다.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곤 "오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라는 입에 발린 소리뿐입니다. 이상하게 설교자들은 자신의 설교에 대한 평가에 알레르기적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경이 말하는 원형에 가까운 형태의 설교를 하시는 정 아무개 목사님은 예배를 마치고 〈설교 복기〉를 합니다. 설교 시간에 다 못 다룬 내용이나, 설교 시간에는 궁금한 것을 질문할 수 없으니 끝나고 설교 복기 시간에 질문도 받고, 설교의 뒷배경 같은 것들을 자유롭게 나눕니다. 신약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예수님도 〈설교 복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주일 설교를 항상 6대지로 쪼개서 합니다. 그 이유는 매일 아침 새벽기도 시간에 한 개씩 반복하기 위해서 6개로 쪼갠 것입니다. 그렇게 한 토막씩 짧게 반복하고 거기에 대해 질문도 받고 보충 설명도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인데....

목회데이터연구소 통계자료를 보면 한국 교회 목회자 중 설교 피드백을 받는 비율은 24%인데,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은 '배우자와 가족'이 75%이고 '교인'(11%), '교회 밖 동료, 선후배, 지인'(11%)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한 번도 남편의 설교가 마음에 든 적이 없음, 항상 '흥! 말은 잘하네...' 그래서 객관적인 피드백이라고 할 수 없음) 오늘날의 설교는 소통이 막혀 있어 거의 목사의 일방적인 '독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776)

## 6.묶인 설교

기독교에서 건드리면 큰일나는 설교(說敎)는 넷째, 오늘날의 설교는 구조로 '묶여'있습니다. 설교를 하려면 반드시 '성경 본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구조를 가진 연설 방식을 다듬어서 서론, 3-4개 정도 대지로 나눈 본론, 결론, 적용의 방법으로 설교를 합니다. 설교가 이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형태의 '설교'라는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역시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Dialegomai'인데(행17:2,행

17:17,행18:4,행18:19,행20:7,행20:9,행24:25) 이 단어는 쌍방통행 대화를 의미합니다. 영어의 dialogue(대화)라는 단어가 바로 이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출석하는 교회의 담임목사님께서 다른 형제 한 명과 함께 불렀습니다. 그리고 신학생이 된 기념선물로 '풀핏 주석' 한 질을, 다른 형제에게도 무슨 주석을 한질 주시면서 "평생 끌고 다녀야 돼" 정말로 저는 '풀핏 주석'을 한 20년 끌고 다니다가 잘 안보게 되어 버렸습니다. 목회자의 책장을 보면 주석이 몇 질씩 기본적으로 꽂혀 있습니다. 주석 몇 개 쭉 펼쳐놓고 적당히 얼버무리면 금방 설교 한편 나옵니다. 목회자들은 주석 몇 질 사면 그것으로 평생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AI가 자동으로 설교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것도 단 몇 분만에 교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전혀 걸림이 없는 무난한 설교를 무한대로 뽑아줄 것입니다. 구조로 짜여진 '설교'는 기계로 벽돌찍듯 AI로 얼마든지 뽑을 수 있습니다. 설교자들은 앞으로 설교의 구조를 완전히 깨서 AI가 할 수 없는 설교를 해야 할 때가 곧 올 것입니다. (7777)

## 7. 값싼 설교

기독교에서 건드리면 큰일나는 설교(說敎)는 다섯째, 오늘날의 설교는 설교를 돋보이게 해주는 온갖 장치들에게 둘러쌓여 있습니다. 설교가 자체 발광(發光)을 해야 하는데, 설교가 빛을 내지 못하니 다른 것들로 보조 조명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크리스탈 강대상을 놓는 것이 유행입니다. 강대상은 크고 화려하고 뭔가 위엄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대상 가격도 장난 아닙니다. 아마도 '설교'를 권위 있게 하고 돋보이게 하려고 강단을 크고 높게 꾸미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거대한 강단을 꾸미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화려한 강대상은 설교자에게서 시선과 기운을 빼앗아갑니다. 말씀을 치장해야지 강대상을 치장하면 안 됩니다. 설교가 비싸야지 강대상이 비싸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설교를 했던 강단(?)은 건물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베란다였습니다. 청중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 계단에 서서 설교를 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아무 교회에 갔다가 괴짝 하나 엎어놓고 설교를 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괴짝은 한국전쟁 때 북한군이 총질을 해서 총알에 맞은 자국까지 있었습니다. 교인이 1만명도 넘는 교회이니 강대상 살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꽃꽂이 장식도 없었습니다. 달랑 민무늬 교탁 하나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직 설교하는 일에만 목숨을 걸었던 담임 목사님의 뜻이었다고 합니다.(세월이 많이 흘러서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대상은 싸구려라도 설교는 수준 높고 비싸고 고급져야 합니다. (7778)

## 8.구약의 설교

기독교에서 건드리면 큰일나는 설교(說敎)를 구약성경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구약성경의 설교자들은 '선지자(예언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대부분 보통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선지자는 '여자'들도 많았습니다.(삿4:4, 왕하22:14, 느6:14, 눅2:36, 행21:9 '여성 목사'를 거부하는 제도는 근본도 없는 아주 비성경적 제도입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처럼 가짜 선지자도 많았으며, 다른 이방 종교의 선지자들도 많았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청중들이 능동적으로 설교에 참여했고 설교가 청중들에 의해 중단되는 일은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청중들은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무조건 '아멘, 아멘' 하지 않았습니다.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선지자를 잡아서 때려죽이는 일도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원고를 써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큰 부담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거나 백성들에게 즉석에서 외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권력의 똥꾸멍이나 빠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짓밟히고 무시당할 때 서슬퍼런 목소리로 왕에게 죄에서 돌이키라고 소리쳤습니다. 세례(침례)요한은 성범죄를 저지른 왕을 향해 회개하라고 소리 지르다가 목 잘려 죽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기적으로 설교를 했다는 기록이나 암시는 보이지 않습니다. 구약의 설교는 산발적이고 유동적이며 청중들과 항상 주고받는 대화 설교를 한 기록은 곳곳에 보입니다. (7779)

## 9.신약의 설교

기독교에서 건드리면 큰일나는 설교(說敎)를 신약성경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설교 다섯편으로 이루어진 설교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비정기적이고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도 설교를 하셨고, 길가에서, 회당에서, 심지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니 호수에 배를 띄워놓고 거기에 올라가서도 하셨고, 들판에서도 하셨습니다. 언제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거대한 강단을 만들어 놓고 기필코 강단을 사수(?)해야 된다는 그런 건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든 필요하면 그 자리가 바로 '강단'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매우 쉬웠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비유나 예화를 들어서 하는

설교라 이해하기 쉽고 감동적이어서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5천명씩 7천명씩 모여들어 며칠씩 설교를 듣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청중들과 서로 이야기를 하는 대화식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만약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구름같은 군중들을 불러 모아 대형교회를 만드는 것이 설교의 목표라면 예수님은 그런 설교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사람들은 도무지 흥미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다고 수군거렸습니다.(요6:60) 그리고 그런 설교가 빈번해지고 길어지자 그 많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다 도망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텅 빈 마당을 보시고 구석에 있던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떠나겠느냐?"(요6:67)고 물으신 적도 있습니다. (77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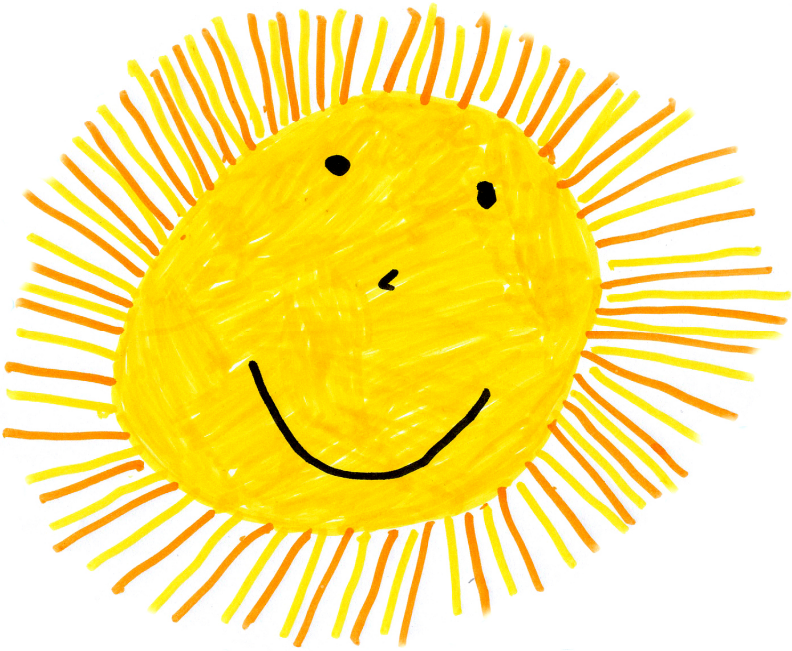
## 10. 바울의 설교

기독교에서 건드리면 큰일나는 설교(說敎)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설교가 8편 정도 실려있습니다. 모두 오늘날과 같이 강단에서 기승전결에 맞추어 딱 30분 칼같은 길이로 한 설교가 아니라 길을 가다가, 감옥에 갇히기 직전 자신을 변론하며, 안식일에 회당에서 등등.. 내용과 형식과 길이와 동기와 대상은 다 제각각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산발적이었으며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즉석에서 원고 없이 행해진 설교였고 수사학적 구조가 없는 자발적인 설교였습니다. 다른 사도들의 설교도 바울의 설교와 다르지 않았습니다.(행2:14-35, 7:1-52, 17:22-34)

가끔 안식일에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도 강론(설교)을 했습니다. 회당에서는 누구든지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먼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사람들을 둘러보며 "형제들이여, 만일 여러분 중에 우리를 위한 무슨 권면의 말씀이 있으면 말하시오"라고 하면 누구든 일어나서 성경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열려있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강도권'이 있는 특정한 전문가만 해야 한다는 규정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초기교회의 모임에서는 교회 모든 지체들이 말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고전14:26-31, 롬12:4, 엡4:11, 히10:25) 그 형식도 좌담형식이었고(고전14:29) 그러다 보니 자주 중단되었습니다.(고전14:30) 초기 그리스도인 모임에서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설교'가 존재했다는 암시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7781) ⓒ최용우



〈오두막일기〉표지 그림

## 웃음의 기적

새벽 4:50분이면 나는 아내가 깨지 않도록 살짝 일어나 책방으로 가서 〈예수어록 아침묵상〉을 1시간 동안 하고 〈햇볕같은이야기〉발송 작업을 한다. 그러면 어느새 아내가 일어나 달그락거리며 아침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얼른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얼굴에 로션도 바른 다음 책방 문을 열고 나가 아내에게 아침 인사를 한다.

"잘 잤슈? 하룻 만에 다시 만나다니 정말 반갑구만유." 아내의 대답은 시큰둥 쳐다보지도 않고 "니엥~!" 누가 충청도 아가씨 아니랄까 반응이 정말 재미가 없다. 그러면 나는 아내가 '내 것'이라는 영역 표시로 찜(?)을 한다. ㅋㅋ

부부가 행복하면 퇴근해서 다시 만날 때 눈 주위의 근육이 움직이고 안 행복하면 안 움직인다고 한다. 어느 날 아내의 얼굴을 살짝 살펴 보았는데...

어유, 다행이다. 아직은 좋은 갑다. 근육이 움직인다.

## 하면 돼지

대평동 쪽으로 상가 건물이 많은데 운동을 하다보면 비어있는 곳이 너무 많다. 전체적으로 50%도 더 되는 것 같다. 뉴스에서도 끊임없이 '세종시 상가 공실' 문제가 나온다. (검색해 보니 대평동 공실률은 55%나 된다. 전국 평균은 약 10%)

가장 큰 원인은 월세가 너무 높다는 것이다. LH에서 상가를 분양할 때 너무 높은 가격에 분양 장사를 했기 때문에 월세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월세가 절대로 안 떨어진다. 두 번째는 엄청난 공급량이다. 인구 40만 도시에 1만 7630실의 상가를 공급했다. 이 정도면 80만 인구의 도시에 맞먹는 양이다. 세 번째는 '과도한 업종 제한'이다. 세종시 상가에서 할 수 있는 업종이 몇 가지 안 된다. 식당과 학원과 병원밖에 없다.

대평동에 〈하면 돼지〉 음식을 맛있게 잘하는 곳이었는데... 식당을 폐업한 것을 보니 〈하면 안 돼지〉였나 보다.

## 그러함(如如)

세종도서관에 가서 책 4권을 반납하고 5권을 새로 빌려왔다. 그동안에는 주로 200번대 에서만 왔다갔다 했는데 오늘은 100번대 철학 서가의 책들을 눈으로 꼼꼼하게 훑었다.

철학 서가의 책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종교 서가의 책보다 훨씬 많다. 철학의 세계도 만만치 않구나. '도덕철학'에 관련된 책 몇 권을 넘겨보다가...

'인간의 궁극적인 실재, 참 본성은 여여(如如)이다.'라는 말이 한 줄 눈에 들어와 밑줄 쫙 긋고 싶었다. 여여(如如)란 '변함없이 한결같다. 마음이 참으로 고요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대충 그런 뜻이다. 불가의 스님들이 마음을 늘 여여한 상태이고 싶어한다고 한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여여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그러한(여여한) 나라이다.

## 불쌍한 호랑이

두진아파트 헌옷수거함 위에 '헌 호랑이'가 하늘이 무너진듯한 표정으로 엎드려 있는 것을 멀리서 보고 깜짝 놀랐다. 다른 헌옷을 다 수거해 간 것으로 보아 아마도 "헌 호랑이는 안돼요" 안 데려간 것 같다.

언젠가 수거함에서 헌옷을 꺼내는 분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진짜, 별것을 다 버려요. 입었던 똥 묻은 빤스도 그냥 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헌옷 수거함은 다시 입어도 될만한 옷을 '재활용'하겠다고 설치한 통인데 '쓰레기통'으로 착각한다는 것이다. 선별과정에서 반 정도는 쓰레기로 폐기한다고 한다.

언젠가 아내가 헌옷을 깨끗이 빨아 말려서 헌옷함에 넣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뭘 그렇게까지 해요. 그냥 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빨래까지는 안하고 헌옷과 쓰레기옷을 잘 구별해서 각각 버린다.

## 고개를 팍

가끔 다른 것이 먹고 싶을 때 가는 짜장면집이 있다. 나에게는 짜장면 한 그릇의 양이 좀 많은 편인데, 여기는 양이 진짜 작아서 바닥까지 싹싹 긁어 먹을 수 있고 가격도 다른 곳보다 싸다.

그런데 그 식당에 갈 때마다 일하는 아주머니가 반말도 아니고 존댓말도 아닌 이상한 인사를 한다.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약간 빈정대는 것 같은 태도와 표정으로 어정쩡하게 손님을 맞이한다. (편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인 노동자가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 문화를 잘 모르면 그럴 수도 있기에)

백종원씨는 장사가 잘되는 식당은 '재방문율이 높다'고 한다. 다시 가고 싶은 식당은 음식 맛보다 '자신이 환영받고 대접받는다는 생각'이 들 때라고 한다.

음식점은 손님에게 나이 불문하고 무조건 존댓말을 쓰고, 고개를 팍 숙여야 한다. 그러면 손님도 저절로 고개를 팍 숙이게 되어 있다. 서로 팍팍!

## 골절

장모님이 밭에서 넘어져 오른손 팔목이 골절되었다.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달려가서 응급처치를 받고 의사들이 다 퇴원한 시간이라 일단 집에 왔다가 다다음날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하셨다. 80평생을 사용한 몸이니 이제는 넘어지면 막 부러진다. 넘어질 때 팔을 짚어서 팔목만 부러진 게 다행이다.

사람의 신체 능력은 20대까지 성장을 하다가 30대에 정점을 찍은 후 또다시 30년 동안은 천천히 쇠락해 간다. 그리고 60부터는 어디가 아프든 부러지든 그냥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것이다.

나는 평생 펜을 잡고 글을 쓰는 일을 하는 바람에 오른손 중지 손가락 머리가 휘었다. 일종의 직업병이라 할 수 있다. 똑바로 펼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대충 그냥 산다. 손가락질을 하면 엉뚱한 곳을 가리키니 아예 손가락질 같은 것 안 하게 되어 좋다.

## 육십갑자 생일

오늘은 내 생일이다. 60회 생일을 옛날에는 '회갑(回甲)'이라고 해서 동네 잔치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디 가서 회갑이라고 하면 "젊은 놈이 어디서..."하고 혼난다. 70살 칠순 정도는 되어야 뭔가 생색을 낼 수 있으니 10년만 더 기다리자.

가족들과 함께 근사한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는 것으로 대충 생색을 내고, 옷을 사주겠다고 하여 '블랙야크' 대리점에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딸들이 내 머리에 꼬깔콘을 씌워놓고 케익에 6자 하나 꽂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준다.

60을 이순(耳順) 이라고 하며 '무슨 말이든 들으면 곧 이해가 된다'는 뜻이다. 이제 비로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어려서...'라는 말을 듣지 않을 나이가 되었다.

사실 나는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쓰고 싶은 글도 많아서 빨리 60이 되고 싶었다. 앞으로 내 인생의 앞날에 무슨 일이 짜잔~ 펼쳐질까? ⓒ최용우

□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마5:1)

#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山行

**▲제654회 비학산297(일출봉252m) 2024.5.8.**

**▲제655회 회문산(830m 순창)**

회문산에는 바위문이 있어 '회문'이라 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그 자리에 '노령문'이라는 인공 성벽이 새로 만들어져 있고 그 옆에 다리와 폭포가 있었다.

6·25전쟁 당시 700여 명의 빨치산이 주둔했던 빨치산 사령부가 있었으며 영화 〈남부군〉의 빨치산 활동 무대가 바로 회문산 주변이다. (2024.5.17. 2명)

**▲제656회 괴화산(槐花山 201m세종) 2024.5.23**

**▲제657회 강천산(왕자봉588m 순창)**

강천산은 왕자봉 선녀봉(578) 연대봉(603)이 병풍처럼 둘러쳐 있고 골짜기마다 단단한 암반 위로 깨끗하고 맑은 물이 샘처럼 솟아 흐른다하여 강천(剛泉)이라고 한다. 블랙야크 인증산인 왕자봉(王子峰)은 어떤 스님이 그곳에 묘를 쓰면 후손 중에 세상을 다스리는 왕자가 나온다는 예언을 한 곳이라 해서 왕자봉이라 했다는데 정상에 무덤은 없고 돌탑만 있었다. 왕은 언제나 인기가 없는 직업.

골짜기 사이로 하늘 높이 떠 있는 빨간다리(현수교)까지는 길이 고속도로이고 거기서부터 1km정도 치고 올라가는 구간이 완전 급경사 구간이다. 쉬엄쉬엄 즐거운 산행이었다. (2024.5.31.최용우 최용남 오만균 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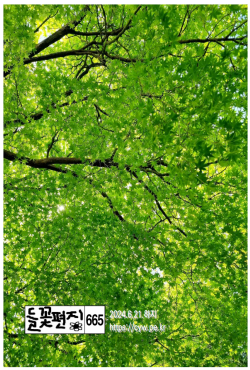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은 2004년 1월 10일 시작되어 1주일에 1회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산행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날짜를 맞춰 동행하겠습니다. 오르고 싶은 산이 있다면 불러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010-7162-3514 최용우

# 우리의 만남은 맛남 입니다~

### ①하지-장마와 더위가 시작되는 계절

어느새 2024년도 절반이 훌쩍 지나가는 중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조건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에덴동산에서 사단은 '먹을 것'으로 최초의 인류를 타락시켰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실 때, 사탄이 또다시 '먹을 것'으로 시험을 했지만 예수님은 거뜬하게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사탄은 '먹을 것'을 '경제'라는 이름으로 포장지를 바꾸어 인류를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마4:4) 사실을 깨닫게 될까요? '하지'하면 '하지감자'가 생각나네요. 하지감자를 쪄서 김이 펄펄 날때 쫙 쪼개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이런, 또 먹이 이야기를 했네요.




### ②표지사진 이야기

세상이 온통 푸르름으로 가득합니다. 초록의 숲이나 연두색 들판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들어오는 초록은 인간의 몸에 아주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가을의 불타오르는 단풍도 인상적이지만 저는 6월의 푸르른 단풍잎을 보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푸르름은 안구정화를 확실하게 해줍니다. 이번호 사진은 페이스북에서 이광하 목사님의 사진을 허락을 받고 가져왔습니다.

"나무는 우주다. 잎과 잎 사이 4만 5천광년 그리움으로 사무쳐 별빛 쏟아지는 은하다."-이광하

### ③도서출판 소식

〈신간〉 오두막 일기 (일기15)/컬러396쪽 24000원 -2024.6.28 출간!
82. 성동-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햇볕23)/318쪽 14000원 -2024.5.30 출간!
81. 마태-예수어록 /692쪽 28000원 -2024.3.19. 출간!
80. 아내에게 바치는 시 (시집11)/컬러216쪽 15000원 -2023.12.26. 출간!
인터넷〈교보문고〉에서 '최용우'나 '책 이름'으로 검색하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교보문고〉를 통해서 현재 77권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살림 드러내기 -2024.5월 재정결산

2024년 5월(1-31일)에 후원하여 주신 분들입니다.(호칭 생략. 가나다순)
고종찬 김광현 김상식 김준경 박근식 박기순 박신혜 양회창 오창근 옥치오
이인숙 이재익 이진우 임대근 장기갑 지경희 최상복 한주환 새벽기도
선한열매교회 안디옥교회 함안중앙교회
총 22분이 1,02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천사들을 동원하여 햇볕같은이야기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천사로 부름받은 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소서!
늘 생각하면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정성... 정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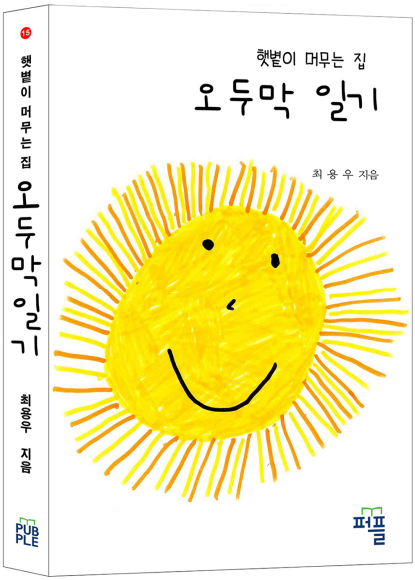
○햇볕같은이야기가 이 시대의 땅끝인 사이버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사이비 이단들과, 유사 기독교로 미혹하는 영들을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터넷문서선교헌금'을 작정해 주십시오. 우리는 후원자들을 '거들 짝'이라고 하며, 매일 이름을 부르며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 ✿우리의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음과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일' 자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①햇볕같은이야기 https://cyw.pe.kr인터넷신문 2024.6.21.일까지 7837호 발행
②문서사역 -월간〈들꽃편지〉, 주보자료파일, 전도자료 발행
③도서출판 -그동안 83권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④기도회 -매일 후원자들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⑤나눔사역 -8곳을 후원합니다.(독거인,문서2,인터넷,북방선교2,선교사,난민)
⑥기독교피정숨터(준비)- 기독교에서는 리트릿(retreat)이란 이름으로 피정을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작은 흙집 한 채를 빌려 〈햇볕같은집〉이라는 이름으로 피정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기독교식 피정의집을 지어 기독교목회사역자들이 언제든 와서 편히 쉬어갈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월간〈들꽃편지〉는 따로 정해진 구독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원하는 분들에게 그냥 보내드립니다. 다만,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지난호가 더러 남아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 챙겨 보내드리겠습니다.




## 6월 28일 새로 나온 책

**<최용우 일기 시리즈>**

1.감사일기 /392쪽 14100원
2.햇빛일기 /396쪽 14100원
3.행복일기 /396쪽 14200원
4.풍경일기 /400쪽 14300원
5.명랑일기 /396쪽 15200원
6.바보일기 /394쪽 23900원(올컬러)
7.웃긴일기 /396쪽 23800원(올컬러)
8.여유일기 /396쪽 23800원(올컬러)
9.오두막일기 /396쪽 24000원(올컬러)

최용우 396쪽 24000원 퍼플

옛날 제가 태어나 국민학교 첫 번째 1학년때까지 살았던 집은 지금은 헐리고 없습니다. 제가 태어난 집은 아주 작은 오두막집이었는데 초가지붕이었습니다. 방은 두 개에 문과 벽이 없어 휑하고 밖으로 드러난 부엌 하나, 그리고 넓은 마당 건너에 염소를 키우던 허청이 있었고, 장독대가 있었고 커다란 감나무 몇 그루에 제법 넓은 텃밭이 집 앞뒤로 있었습니다. 무 배추, 고구마, 아욱, 상추, 오이같은 채소는 거의 모두 밭에서 거두어 먹었습니다.

돌로 쌓은 돌담을 따라 앵두나무, 보리수나무, 대추나무, 밤나무, 가을마다 노란 국화가 피었고 여름에는 돌담을 타고 기대어 놓은 나뭇가지에 오이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돌담 위로는 가을이면 노란 호박이 앉아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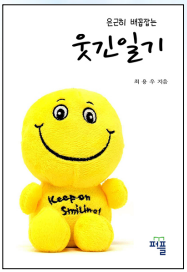
부엌은 아궁이에 무쇠솥이 걸려있었고 아주 작은 마루가 있었는데 마루에 앉아 있거나 드러누우면 파란 하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비와 벌은 꽃을 찾아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나나리벌은 흙집 어디에 집을 지으려고 기웃거리고, 지내도 지나가고, 콩벌레도 지나가고, 처마 밑에는 제비가 집을 짓고, 누렁개는 하품을 하고, 담장 위로 고양이는 소리 없이 지나가고, 참새가 짹짹거리는 집이었습니다. 상상이 안 된다면 시편104편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최용우 저서

## 바보일기

나는 멍청하고 멍청하여라. 나 홀로 바보 같고 비루하구나.-라던 노자(老子)는 자금도 살아있는데, 당대에 빛나고 똑똑했던 그 많던 자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 365편의 바보같은 이야기
23,900원 394쪽(컬러) 퍼플




## 웃긴일기

우리의 삶은 신비와 재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자세히 들여다 봐야 합니다. 그렇게 삶 가운데서 자세히 보고 쓴 365편의 은근히 배꼽잡는 웃긴 이야기
23,800원 396쪽(컬러) 퍼플

## 여유일기

맘대로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친구도 못 만나고, 가족들한테도 소홀히 하게 되는 바쁨이 과연 정상인가? 너무 열심히 살지 말자. '열심'도 병이다. 여유롭게 천천히 쓴 365편의 이야기
23,800원 396쪽(컬러) 퍼플

## 오두막 일기

활짝 핀 밤꽃 향기 멀리서 날아오고 내 주님 달콤 향기 멀리서 불어오네. 꽃향기 주님 향기 가득 충만한 내 작은 오두막집 여기가 바로 천국이라네. 햇볕이 머무는 집에서 쓴 365편의 이야기
24,000원 396쪽(컬러) 퍼플

## 숲속의 아침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집을 나와 갈 곳 없어 방황하며 공원 의자에서, 도서관에서, 산속에서 수첩에 끄적거리며 눈물로 썼던 詩를 모아 첫 번째 시집으로 묶었습니다.
7,200원 138쪽 퍼플

## 설레임

세상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담백하게 그려낸 쉽고 유쾌하고 재미있고 심장이 벌떡거릴 만큼 감동적인 시집. 이 세상이 얼마나 가슴 두근거리는 설레임으로 가득한 곳인지 깨닫게 됩니다.
6,700원 146쪽 퍼플

❀여기에 소개된 책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샬롬!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 http://cyw.kr *들꽃숨터(피정) http://cyw.co.kr *햇볕같은이야기 https://cyw.pe.kr
*이메일 9191az@hanmail.net ☎ 010-7162-3514(문자로 먼저 용건을 남겨 주세요)
*후원구좌 국민은행 214-21-0389-661 농협 138-02-048495 하나은행 117-891254-32307
*3008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쑥티2길 5-7번지 들꽃편지 햇볕같은이야기

들꽃편지 제665호 *발행.편집인: 최용우 (1990.1.1.창간)